

## LABOR INSPECTION

ISSUE PAPER

TALK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 산업안전감독이 '물감독' 되지 않으려면



### # 장면 1

고용노동부가 7~8월 건설업체 69곳을 감독한 결과 91%인 63곳에서 297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율이 90% 밑으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 # 장면 2

2022년 10월 15일 파리바게뜨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산업안전감독 한 달 후 발생했다. 같은 해 9월과 10월 잇따라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은 넉 달 전 실시한 산업안전근로감독에서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안전간 설치 기준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은 심지어 사고(2022년 8월 31일 1명 사망, 6명 중상) 이틀 전 감독을 받았지만 사고는 막지 못했다.

요즘 고용노동부는 자리를 만들기 바쁘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신속히 충원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9월 15일부터 500명 공개채용이 시작됐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전격 지시에 따른 것으로, 올해 채용 계획에도 없던 긴급 선발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새 명칭도 공모 중이다. ‘노동경찰’, ‘노동보호관’, ‘노동기준감독관’ 등이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앞선 사고 장면에서 드러나듯, 본질은 숫자나 명칭이 아니다. 근로감독은 여전히 ‘문제가 터진 뒤 달려가는’ 구조다. 임금 체납, 산재, 직장 괴롭힘이 발생해야 비로소 움직인다. 불이 난 뒤 소방차가 몇 대 오느냐보다 중요한 건 불이 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 **부족한 전문성, 낡은 시스템**

이번 산업안전감독관 채용인원의 60%를 과학기술직으로 뽑는다지만 훈련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반 공무원과 같은 채용 절차를 거쳐 4~5개월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감정노동, 플랫폼노동,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새로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수사관, 성차별·직장 내 괴롭힘 전문 감독관 등 특화된 인력을 요구하지만 변화는 더디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술자격을 갖춘 전문 감독관이 행정·사법조치와 함께 기술 지도까지 병행하는 시스템과는 차이가 크다.

근로감독의 법적 근거도 문제다. 「근로기준법」 조문에만 머물러 있어 감독관의 다양한 역할을 포괄하기 어렵다. 시정지시 근거도 법률이 아닌 ‘집무규정’이라 법적 효력이 불안정하다. (가칭)「근로감독에 관한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왜 근로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한국은 1992년 ILO 81호 ‘근로감독’ 협약을 비준했지만, 핵심인 불시점검 권한은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정기감독 10일 전 문서 통보를 의무화하고, 사업주 요청 시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협약의 불시감독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전 통보는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노동 조건을 급히 수정할 기회를 준다. ILO 전문가위원회도 한국 감독의 불시성 부족과 감독 물량 부족을 반복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안전 분야 불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감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체셔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감독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 이 후다. ‘물감독’ 비판을 피하려면 재감독을 활성화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근로감독 결과 공개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사업장별 법 위반 사실과 시정 명령을 공표하면 행정 실효성이 높아지고 다른 사업장의 자발적 준법도 유도할 수 있다.

●● **노동부,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단순히 인력을 늘린다고 근로감독 혁신이 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서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9월 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라며 “비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했다. 단순히 이름을 ‘노동부’로 바꾼 것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감독관 한 명 한 명이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

